



탈무드, 우리가 만난 선생님

천개의바람 | 지다나 글 | 김현영 그림

등장인물 파악하기

- 다음 등장인물 소개의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세요.



1 학교 도서관에 자원봉사를 하러 온 선생님이에요.
평소에 '()'라는 책을 좋아해, 그 책에 나오는 인물인 '랍비'의 이름
을 따 '라비'라는 별명을 지었어요.

라비쌤



2 우연한 기회에 라비쌤을 만나 탈무드를 읽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반 친구들을 대상으로 ()를 열어요.

민율



3 활달하고 호기심이 많은 성격이에요.
단짝 민지와 다툼 후 ()를 하지 못해 괴로워하다 라비쌤에게 조언을
받아요.

탐희



4 민율이와 친한 친구예요.
공부 때문에 엄마에게 ()을 듣는 일이 많아요.

수호

<보기>

꾸중

탈무드

고민 상담소

화해

내용 파악하기

- 다음 물음에 알맞은 답을 찾아보세요.

1 민율이와 라비쌤이 처음 만난 상황에 대한 설명이에요.
바른 설명을 두 가지 고르세요. (,)



- ① 민율이와 라비쌤이 만난 건 아침 등굣길이다.
- ② 수호가 민율을 놀린 건 민율이 리코더를 못 불어서다.
- ③ 수호가 민율에게 '쌈바'라는 별명을 지어 주었다.
- ④ 기분이 상한 민율이 무심코 찬 돌멩이에 라비쌤이 맞았다.
- ⑤ 돌멩이에 맞은 라비쌤이 민율이에게 화를 냈다.

2 라비쌤은 스스로 바보 같다고 여기는 민율이에게 '진짜 바보'라는 탈무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이야기를 잘 읽고 ⑦에 들어갈 알맞은 문장을 골라 보세요. ()

어느 날, 한 사람이 랍비를 찾아왔어요. 그는 평소에 바보라고 놀림을 받곤 했죠.
“랍비님, 사람들이 저를 바보라고 합니다. 저도 제가 좀 어리석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정말 바보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진짜 바보입니까?”
그가 진지하게 묻자 랍비가 대답했어요.
“자기가 바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라네. 그러니 자네는 바보가 아니지.”
그가 다시 물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저를 바보라고 놀리는 걸까요?”
“흠, 그리고 보니 자네는 바보가 맞군.”
“네?”
랍비는 깜짝 놀라는 그를 보며 말했어요.
“자기 자신이 바보라는 것을 안다면 바보가 아니라네. ⑦_____”

- ① 진짜 바보는 남들에게 바보 소리를 듣는 사람이라네.
- ② 하지만 자기 자신이 바보라는 것을 모른다면, 남들도 자네가 바보인 것을 모를 걸세.
- ③ 남들이 자네를 바보라고 한다면, 어떤 면이 모자란지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해.
- ④ 하지만 남들이 하는 말을 듣고 스스로를 바보라고 여긴다면, 그건 진짜 바보라네.

3 라비쌤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을 하나만 고르세요. ()

- ① 라비쌤은 도서관에 자원봉사를 하러 왔다.
- ② 라비쌤은 도서관에 오는 학생들에게 사탕을 주며 책을 읽게 했다.
- ③ 라비쌤은 진정한 아름다움은 눈에 보이는 겉모습에 있다고 말했다.
- ④ 라비쌤은 학생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기 위해 특별한 주문을 원다.
- ⑤ 라비쌤은 매우 엄격하고 고지식한 성격을 갖고 있다.

4 탐희가 단짝인 민지와 다투고 화해한 과정을 순서에 맞게 나열해 보세요.
(- - - - -)

- ㉠ 민율이가 민지의 속마음을 탐희에게 전하고, 충고를 해 주었다.
- ㉡ 탐희가 민지와 화해하고, 다시 예전처럼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
- ㉢ 민지가 탐희의 얼굴이 담긴 사진을 허락도 받지 않고 다른 친구에게 전송했다.
- ㉣ 탐희가 민지에게 사진을 전송한 일을 따지자, 민지도 탐희에게 화를 냈다.
- ㉤ 탐희가 민지와 멀어진 뒤 라비쌤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다.



5 수학 경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해 시무룩한 수호에게, 민율이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탈무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적어 보세요.

㉠: ㉡:

랍비가 제자와 함께 어느 시장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이곳에 있는 사람 중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제자가 사람들을 유심히 살폈어요.

“아하, 부자 상인이군요?”

“돈이 많다고 생명을 살 수는 없지.”

“그럼 학자인가요?”

“아는 것이 많아도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으니 학자도 아니다.”

제자가 갈피를 못 잡자, 랍비가 그를 이끌고 시장 한쪽의 시끌벅적한 곳으로 갔어요. 그곳에는 사람들이 어릿광대의 공연을 보며 박수 치며 깔깔 웃고 있었지요. 랍비가 그 모습을 보며 말했어요.

“사람들에게 (㉠ 과 ㉡)을 주는 어릿광대야말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다.”



6 민율이가 고민 상담소를 열고 난 뒤 걱정에 빠졌어요.

민율이가 걱정하는 이유로 알맞은 것을 두 개 고르세요. (,)



① 고민 상담을 받은 친구가 자신의 충고를 따랐다 일이 더 잘못될까 걱정이 되었다.

② 상담 내용에 맞는 텔무드 내용을 그때그때 찾지 못해 걱정이 되었다.

③ 수호, 탐희와 이야기할 때와 달리 상담할 때는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④ 다른 친구들도 고민 상담소를 열까 봐 걱정이 되었다.

⑤ 담임 선생님께 고민 상담소를 연다는 허락을 받지 않아 걱정이 되었다.

7 다음은 텔무드 가치 중 '정직'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에 가장 잘 어울리는 사자성어를 말한 사람은 누구인지 찾아보세요. ()

+문을 잠그는 이유

아들과 외출을 하려고 집을 나선 어머니가 문에 자물쇠를 채우자 아들이 물었어요.

“어머니, 자물쇠로 문을 잠그는 건 나쁜 사람들이 집에 들어올까 봐 그런 거죠?”

어머니는 아들을 보며 대답했어요.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정직한 사람을 위해서도 문을 잠가야 한단다.”

“왜요?”

“문이 열려 있으면 아무리 정직한 사람이라도 유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

아들은 어머니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① 민희: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

② 준수: 견물생심- 물건을 보면 그것을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

③ 태오: 소탐대실- 작은 것을 탐내다가 큰 것을 잃다.

④ 효숙: 감언이설- 달콤한 말과 이로운 조건으로 남을 꾀는 말.

⑤ 지선: 동문서답- 질문과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대답.

책 감상하기

- 책을 읽고 나서 든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1 느낀 점

2 가장 인상 깊은 장면

3 민율이처럼 '탈무드'로
삼행시를 지어 보세요.

탈:

무:

드:



정답

<1쪽>

1. 탈무드
2. 고민 상담소
3. 화해
4. 꾸중

<2쪽>

1. ③, ④
2. ④

<3쪽>

3. ①
4. ④ - ③ - ② - ⑦ - ⑤
5. ⑦: 웃음 ⑤: 행복

<4쪽>

6. ①, ③
7. ② 준수

<5쪽>

1. (예) 이 책을 읽으면서 나도 친구들에게 더 친절하게 대해 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실수를 해도 거짓말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나도 민율, 탐희, 수호처럼 친구들과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고 싶어졌다.
2. (예) 탐희가 친구 민지와 다투고 화해하는 과정이 재미있었다. 왜냐하면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화해를 하지 못하고 친구와 절교했는데 탐희의 행동을 보니 내 행동을 반성하게 되었다. 나도 그때 탐희처럼 솔직한 심정으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절교까지 하지는 않았을 텐데 아쉽다.
3. (예) 탈: 탈 없이 즐겁게 놀고 싶다!
무: 무지개처럼 예쁜 미끄럼틀도 타고,
드: 드넓은 놀이동산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래!
